

- **주요 뉴스:** 12월 FOMC 전망. 연준은 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가능성
 - 미국 뉴욕 연은 서베이, 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은 상향. 소득증가율 기대는 둔화
 - 영란은행 총재, 오미크론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총리, 금년 주요 경제목표 달성을 확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FOMC 경계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9%],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긴축정책 강화 우려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독일은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약화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4.9원, +4.3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12/13일	12/10일	전일대비			12/13일	12/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69.0	4,712.0	-0.91%	국채 금리 10y	미국	1.42%	1.48%	-6bp
	유럽	473.53	475.56	-0.43%		독일	-0.38%	-0.35%	-3bp
	중국	3,681.1	3,666.3	0.40%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640	28,438	0.71%		중국	44bp	44bp	0bp
	한국	3,001.7	3,010.2	-0.28%	위험 지표	EMBI+	-	383	-
환율	달러지수	96.35	96.10	0.26%		VIX	20.31	18.69	8.67%
	유로화	1.1284	1.1313	-0.26%		WTI유	71.29	71.67	-0.53%
	엔화	113.54	113.44	-0.09%	원자재	구리	428.7	428.3	0.09%
	위안화	6.3670	6.3700	0.05%		금	1,786.7	1,782.8	0.21%
	원화	1,180.8	1,181.3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2월 FOMC 전망. 연준은 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가능성

- 12월 FOMC가 이번 주(14~15일) 예정.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여건,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연준은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인상 경로 강화 등 긴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 다수의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6월에서 3월로 변경. CME Group에 따르면, 내년 5월 첫 금리인상 가능성이 50%를 상회. BofA는 점도표에서 내년 2회의 금리인상, 2023~24년 6회 금리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일부에서는 노동시장 회복의 불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지속 등으로 과도한 긴축 대응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만일의 경우 노동시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Morgan Stanley는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노동시장 회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서베이, 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은 상향. 소득증가율 기대는 둔화

- 이번 설문조사에서 1년 후 물가상승률을 6.0%로 예상하여, 이전(5.7%) 대비 상승. 1년 후 소득증가율은 2.8%로 기대되어 이전 조사(3.0%) 대비 하락. 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과 소득증가율 기대의 격차(3.2%)는 2013년 이후 최대

■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각각 내년 미국 주가의 소폭 상승과 하락을 예상

- 골드만 삭스는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S&P500 지수가 내년 말에 5100(+1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반면, 모건 스탠리는 4400(-6.6%)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 삭스는 내년 주가가 혹시 하락해도 한 자릿수(5%~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

■ 독일 11월 도매물가, 1962년 이후 최고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원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도매물가는 전년동월비 16.6% 상승하여 집계가 시작된 1962년래 최고 수준. 이번 결과는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 영란은행 총재, 오미크론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베일리 총재는 오미크론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 충격이 팬데믹 초기와 비교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 오미크론이 금융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블룸버그 서베이, 영란은행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은 편

-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으로, 영란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으나 당국은 인플레이션 향방을 좀 더 살펴볼 것으로 판단

■ 중국 총리, 금년 주요 경제목표 달성을 확신

- 리커창 총리는 내년에는 새로운 경기하방 압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 또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BOC International, 정부는 과도한 위안화 가치 상승을 회피할 필요

- 금융서비스 기업 BOC International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위안화 가치와 경제 여건의 괴리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OPEC, 2022년 1/4분기 원유수요 전망을 상향. 오미크론 영향은 경미

- 내년 1/4분기 일일 원유수요를 9913만배럴로 추정하여, 이전 예상치보다 일일 111만배럴 상향.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

■ 터키 재무장관, 당국은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 리라화 약세 지속

- 뉴레딘 네바티 장관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리라화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발언. 또한 현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종료 시기를 알지는 못한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11월 생산자물가,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낙관론 속에 대형 리스크 잠재 - 블룸버그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These Are the Biggest Economic Risks for 2022)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주요국 재정지원,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통한 투자 촉진 등을 2022년 세계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거론. 하지만 새로운 코로나 19 변이, 인플레이션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연준의 통화정책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내재
- 특히 오미크론 확산 시 수요 둔화와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유가상승 등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 또한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강화는 신흥국 경제에 타격

■ 연준의 긴축정책 가속화 가능성, 증시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Fed is ready. Is the market?)

- 지난 주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결과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평가 등으로 증시는 우려와 달리 상승세 지속. 최근 유가 하락 및 병목 완화에 대한 기대도 부각
- 또한 채권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이에 지난 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
- 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 이 외에도 긴축정책 가속화, 높은 수준의 주가수익비율(PER), 소득증가 및 중국 성장을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은 향후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 감소 등 코로나 19 여파로 예측에 어려움 증가 - WSJ

(Why U.S. Job Gains Are So Hard to Count During Covid-19)

■ 유럽의 임금인상 압력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 - The New York Times

(Workers in Europe Are Demanding Higher Pay as Inflation Soars)

■ 금주 주요국 통화정책 발표, 국가별 경제여건 반영하여 결과는 상이할 전망 - WSJ

(Global Central Banks Diverge as Omicron Clouds Growth, Inflation Outlook)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